

한국의 시장경제 창달을 위한 방안 小考

김종권*

I. 序 論

한국경제는 현재 외환위기 이후 가장 비관적인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경영자총연합회 조사 대상의 최고경영자(CEO) 10명 중에서 6명이 2005년 경제성장률을 3% 대 이하로 2004년(4.7%, 한국은행 추정 기준)보다 크게 나빠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중 81%는 경기회복 시점에 대해서도 2006년 이후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기회복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내수부진에 따른 수급 불안과 국제유가 불안, 높은 임금상승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수출의 최대 변수인 내년도 원/달러환율 수준에 대해 절반이 1천원에서 1천49원 사이로 보고 있어 최근 환율 수준보다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업들이 경영활동하기에는 경제적인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또한 기업외적 환경에서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보수와 혁신 국론분열 지속, 비생산적 정치이슈로 경제 및 시장논리 상실 등이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질서 체제의 확립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실정이며 이에 필요한 방안들에 어떠한 것들이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신홍대학 경상정보계열 교수

II. 시장경제 창달 필요성에 대한 고찰

'2003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조사 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15위로 평가돼 전년도 기준으로 5단계 하락하였다. 즉, 스위스 소재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3년 5월 14일 전 세계 59개 국가 및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을 발표하였다.

2003년 들어 한국은 인구 2천만 명 이상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15위로 평가되었고 이는 전년도 10위에 비하여 5단계나 하락한 것으로 인구 2천만 명 이상 아시아 6개 국가 및 지역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것이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 아시아 지역에서는 말레이시아가 4위로 가장 높았으며, 대만(6위), 태국(10위) 순으로 나타났고, 한국은 일본과 중국에 뒤쳐지는 것은 물론 중국 내 일개 지역인 저장성보다도 낮은 15위로 평가되었다. 한국은 2002년도 10위에서 5단계 하락한 15위를 기록함으로써 인구 2천만 명 이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브라질, 베네수엘라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 폭이 큰 국가가 되었다. 이것의 주된 요인은 높은 생계비 지수(28위), 낮은 수출입 등가 교역 지수(26위)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인들과 함께 외국기업에 대한 입법관련 차별(30위), 노사관계의 적대적인 정도(30위)와 같은 경제외적인 국가 경쟁력 지원 요인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시장경제를 외면한 결과는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중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기업에 대한 신속한 입법관련 지원 및 차별철폐가 시급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에 따른 기업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알 수 있다.

2003년도의 각 부문별 순위를 살펴볼 때, 한국은 경제지표, 국가재정구조, IT 인프라 등과 관련하여서는 최상위권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시장경제 질서를 외면한 결과로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 노사관계 등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표 1>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지역의 국가경쟁력 순위 변화추이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미국	1	1	1	1	1
호주	3	3	3	3	2
캐나다	2	2	2	2	3
말레이시아	9	9	10	6	4
독일	4	4	4	4	5
대만	5	6	5	7	6
영국	6	5	6	5	7
프랑스	8	7	8	9	8
스페인	7	8	7	8	9
태국	16	13	14	13	10
일본	10	10	9	11	11
중국	11	11	12	12	12
상파울로(브라질)*	-	-	-	-	13
저장성(중국)*	-	-	-	-	14
한국	21	12	11	10	15
콜롬비아	23	23	21	20	16
이탈리아	13	16	13	14	17
남아프리카공화국	22	20	17	16	18
마하라슈트라(인도)*	-	-	-	-	19
인도	19	18	19	17	20
브라질	17	15	16	15	21
필리핀	12	17	18	18	22
루마니아	-	-	-	-	23
멕시코	14	14	15	19	24
터키	18	21	20	23	25
러시아	26	26	22	21	26
폴란드	20	19	25	22	27
인도네시아	25	24	24	25	28
아르헨티나	15	22	23	26	29
베네수엘라	24	25	26	24	30

주 1 : * 로 표시된 곳은 ()안에 명기된 국가 내 지역임 (2003년부터 포함)

2 : 국가별 각 년도 순위는 2003년부터 변경된 집단 구분에 의해 재조정된 것임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2003.5.14.

2003년 들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가운데 기업경영효율 부문의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기업부문의 경쟁력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사관계 안정, 외국인 투자유도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정책과제의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지역의 국가경쟁력 부문별 순위

구 분	종합순위			경제운영성과			정부행정효율			기업경영 효율			발전인프라 구축		
	'02	'03	비고	'02	'03	비고	'02	'03	비고	'02	'03	비고	'02	'03	비고
미국	1	1	-	1	1	-	1	2	↓1	1	1	-	1	1	-
호주	3	2	↑1	10	10	-	2	1	↑1	3	2	↑1	3	2	↑1
캐나다	2	3	↓1	5	6	↓1	3	4	↓1	2	3	↓1	2	3	↓1
말레이시아	6	4	↑2	8	8	-	4	3	↑1	7	5	↑2	10	9	↑1
독일	4	5	↓1	3	3	-	8	12	↓4	6	6	-	4	4	-
대만	7	6	↑1	17	11	↑6	9	6	↑3	4	4	-	7	7	-
영국	5	7	↓2	2	5	↓3	5	8	↓3	5	7	↓2	8	8	-
프랑스	9	8	↑1	6	4	↑2	19	14	↑5	13	11	↑2	5	6	↓1
스페인	8	9	↓1	7	9	↓2	6	7	↓1	8	12	↓4	11	10	↑1
태국	13	10	↑3	9	7	↑2	7	5	↑2	14	9	↑5	17	16	↑1
일본	11	11	-	15	14	↑1	17	17	-	16	21	↓5	6	5	↑1
중국	12	12	-	4	2	↑2	10	9	↑1	18	24	↓6	14	17	↓3
상파울로(브라질)*	-	13	-	-	22	-	-	13	-	-	8	-	-	13	-
저장성(중국)*	-	14	-	-	13	-	-	10	-	-	15	-	-	23	-
한국	10	15	↓5	11	18	↓7	11	18	↓7	10	20	↓10	9	11	↓2
콜롬비아	20	16	↑4	20	21	↓1	20	11	↑9	15	18	↓3	15	14	↑1
이탈리아	14	17	↓3	13	15	↓2	18	23	↓5	12	17	↓5	12	12	-
남아프리카공화국	16	18	↓2	21	23	↓2	12	15	↓3	11	10	↑1	20	21	↓1
마하라슈트라(인도)*	-	19	-	-	16	-	-	20	-	-	14	-	-	25	-
인도	17	20	↓3	12	12	-	16	19	↓3	17	19	↓2	25	27	↓2
브라질	15	21	↓6	16	20	↓4	14	22	↓8	9	13	↓4	16	19	↓3
필리핀	18	22	↓4	14	19	↓5	15	21	↓6	19	23	↓4	22	26	↓4
루마니아	-	23	-	-	26	-	-	24	-	-	22	-	-	20	-
멕시코	19	24	↓5	18	17	↑1	13	16	↓3	20	25	↓5	23	29	↓6
터키	23	25	↓2	26	28	↓2	22	26	↓4	22	16	↑6	19	15	↑4
러시아	21	26	↓5	22	25	↓3	21	25	↓4	21	27	↓6	13	18	↓5
폴란드	22	27	↓5	23	27	↓4	24	28	↓4	24	26	↓2	21	24	↓3
인도네시아	25	28	↓3	19	24	↓5	23	27	↓4	26	30	↓4	26	30	↓4
아르헨티나	26	29	↓3	25	29	↓4	26	29	↓3	25	29	↓4	18	22	↓4
베네수엘라	24	30	↓6	24	30	↓6	25	30	↓5	23	28	↓5	24	28	↓4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2003.5.14.

경제운영성과 부문을 보면, 현재의 경제지표면에서는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와 관련해서는 최하수준을 나타내어 장기적인 기업성장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외국인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유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야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한편, 정부행정효율 부문을 볼 때, 전반적인 국가 재정구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경쟁 질서에 반하는 자본 및 재산관련 조세부담과 외국 기업에 대한 입법관련 차별 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경영효율 부문을 보면,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노사관계가 가장 적대적인 나라로 평가되었다. 한편,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의 외국인 생활환경 수준은 7위였는데,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말레이시아, 3위는 일본, 4위는 홍콩의 순으로 도시별로도 서울은 10위로 아시아 주요 도시 중 바닥권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에 대한 비시장경제적이고 비우호적인 경제환경 등은 결국 국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접 및 간접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 인구 2천만 명 이상 국가·지역의 세부 부문별 국가경쟁력 순위

경제운영성과(18위)		정부행정효율(18위)		기업경영효율(20위)		발전인프라구축(11위)	
1.1 국내 경제활력	9위	2.1 재정 구조	1위	3.1 생산성	15위	4.1 경제 인프라	16위
1.2 국제무역	10위	2.2 재정 정책	15위	3.2 노동 시장	19위	4.2 기술 인프라	10위
1.3 해외투자	30위	2.3 경제 제도기구	14위	3.3 자금 시장효율	14위	4.3 과학 인프라	10위
1.4 고용 및 실업	4위	2.4 기업 관련입법	24위	3.4 기업 경영관행	25위	4.4 보건 및 환경	12위
1.5 물가 및 생계비	26위	2.5 사회 정서	28위	3.5 태도 및 기치관	14위	4.5 교육 경영	18위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5.14.

<표 4> IMD 선정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강점과 약점 20가지

강 점				약 점			
항목	지표	값	순위	항목	지표	값	순위
4.3	민간 연구개발 인력 천 명당 특허획득 건수	263.4건	2위	1.5	뉴욕시 대비 생필품 기준 도시 생계비 지수	95.8	28위
3.3	1인당 신용카드 발급 수	1.9개	3위	1.2	수출입 동가 교역 지수	61.1	26위
4.3	GDP대비 총 연구개발비 지출	2.9%	2위	2.2	자본 및 재산관련 조세액, GDP 대비	3.1%	27위
3.3	주가지수 증가율	32.2%	2위	4.5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32.1명	21위
2.1	GDP대비 중앙정부 재정수지 흑자 비중	3.9%	2위	1.3	GDP대비 외국인 투자유입 비중	0.75	24위
4.2	인구 천 명당 인터넷 이용자 수	557.3명	2위	2.2	GDP대비 간접 조세 수입	10.8%	22위
4.1	유아, 노령인구 부양비율	39.7%	2위	4.2	인구 백만 명 당 보안서버 수	5.14	10위
4.5	25~34세 인구 대학 진학률	40.0%	3위	4.5	중·고교 교사 1인당 학생 수	21.2명	24위
2.1	GDP대비 중앙정부 국내부채 비중	0.5%	2위	1.3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55억 달러	12위
2.3	은행간 실질 단기이자율	0.26%	2위	1.3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액	32억달러	21위
4.5	적령 청소년 고등학교 등록비율	94.4%	5위	1.3	해외직접투자액	62억달러	13위
4.2	인구 천 명당 이동전화 가입자 수	278.9명	5위	1.3	외국인 주식시장 직접 투자 유치액	472.3억달러	18위
1.4	실업률	3.10%	3위	4.5	GDP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비중	3.6%	21위
3.2*	상급경영진의 해외 근무 경험	6.37	1위	2.4*	외국기업에 대한 입법관련 차별정도	5.88	30위
4.2*	인터넷 접근 용이성 정도	8.82	3위	3.2*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정도	3.55	30위
3.5*	세계화에 대한 긍정적 태도	6.41	3위	3.5*	외국 아이디어에 대한 문화적 수용 정도	5.27	30위
3.5*	세계화가 경제에 주는 이익에 대한 기대 정도	6.00	5위	3.4*	법인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효과적 지원 정도	3.96	29위
4.2*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적절성	7.76	7위	2.5*	(인종, 성 등) 사회적 차별정도	4.37	28위
4.4*	알코올과 약물의 작업 현장 남용방지	7.00	7위	4.5*	대학교육의 경제적 경쟁력 지원정도	3.55	28위
4.3*	기초과학연구의 경제개발 기여도	6.20	8위	3.3*	주주권리와 책임이 명백한 정도	4.57	28위

주 : * 로 표시된 것은 설문조사로 평가된 항목을 의미함

자료 : 국제경영개발원(스위스, IMD), '2003년도 IMD 세계 경쟁력 연감(The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3)', 2003.5.14.

2003년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근거로 살펴볼 때, 현 단계 한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법규 개정 및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간 신뢰회복에 근거한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2004년 5월 발표한 "2004년 국가경쟁력"조사에서 금융규제 부문의 우리나라 성적은 조사 대상 60개국 가운데 52위였다. 그리고, 세계 59개 연구기관의 모임인 경제자유네트워크가 2004년 7월 발표한 "2002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의 금융자유지수는 1백23개국 가운데 63위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금융규제가 상대적으로 많아 금융권간 차별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오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경제 체제에 걸맞게 완전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면 창의적인 상품 개발 등이 불가능해져 결국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시장경제 질서의 약화에 기인하여 '2004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평점 2.69로 홍콩 1.34와 싱가포르 1.61은 물론, 대만 2.43과 일본 2.53에 비해서도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같은 수치는 2001년도 평점이 2.35를 기록한 이후 2002년 들어 2.49, 2003년 2.75로 나빠진 데 이어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2004년 2.69에 머무른 것이다. 이와 같은 수치는 통상정책 4.0, 정부의 재정부담 3.4, 규제 3.0, 금융 3.0, 암시장 3.0 부문에서 좋지 않은 평점을 받은 것에 기인하고 있다.

<표 5> 경제자유지수 순위

순위	국가	2000	2001	2002	2003	2004
1	홍콩	1.4	1.29	1.39	1.44	1.34
2	싱가포르	1.59	1.66	1.69	1.61	1.61
3	뉴질랜드	1.75	1.71	1.68	1.68	1.70
4	룩셈부르크	1.84	1.79	1.88	1.68	1.71
5	아일랜드	1.81	1.60	1.73	1.73	1.74
6	에스토니아	2.19	1.89	1.73	1.68	1.76
7	영국	1.85	1.78	1.83	1.88	1.79
8	덴마크	2.29	2.10	1.79	1.71	1.80
9	스위스	1.91	1.89	1.80	1.88	1.84
10	미국	1.88	1.79	1.84	1.86	1.85
34	대만	1.98	2.18	2.38	2.29	2.43
38	일본	2.16	2.04	2.44	2.36	2.53
46	한국	2.50	2.35	2.49	2.75	2.69

주 : 평점기준임

자료 : 미국 헤리티지 재단, 2004.1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들어 133개 국가 중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4.3을 기록해 50위로 전년비 10단계 하락하였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4.3을 기록하여 대만 5.7(30위)과 말레이시아 5.2 (37위)와 비교할 때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도 시장경제 질서를 역행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표 6>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이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순 위	50	48	42	40	50
지 수	3.8	4.0	4.2	4.5	4.3
총 조사대상국	99	90	91	102	133

자료 : 국제투명성기구, 2003.10

III.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정부의 기업 정책

과거 수십 년 동안 한국 기업은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인식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대시켰다. 물론 한국 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즉,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지 못하는 이사회 기능,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윤리와 주주 가치에 어긋나는 의사결정 등이 이에 해당되고 있다.

국내 대기업인 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보다 빨리 그리고 더 시급하게 개혁되어야 할 대상은 정부의 기업정책이다. 이는 위에서 살펴본 '2003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에서도 나와 있듯이 한국 정부의 기업정책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의 국가 경쟁력은 30개 국가(인구 2천만 명 이상) 가운데 15위로 중간 정도에 머물고 있다.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business efficiency)과 정부의 기업정책 경쟁력(business legislation) 항목을 국가별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서 분석한 2003년도 두 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상관관계계수는 73%로 나타났다. 이는 기업경쟁력이 높은 국가가 정부의 기업정책 경쟁력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미국, 영국 등 글로벌 초우량

기업을 다수 보유한 국가의 경우 두 항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 2003년 한국은 기업 경쟁력이 20위 인 반면에 정부의 기업정책 경쟁력이 24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기업 경쟁력이 20위 정도인 국가의 기업정책 경쟁력이 16위는 되어야 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 정부는 24위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아닌 정부가 우선 개혁 대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정책을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즉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확립하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시장,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조세제도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

2003년도의 글로벌 TOP 10 후보기업 및 기타 기업, 경제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정책과제들로서 다음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수도권입지 규제 완화, 규제일몰제 도입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추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들고 있다. 반면에 도입해서는 안 될 정책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금융사 계열분리 청구제, 금융사 계열사주식 의결권 제한과 출자총액제한 금지, 대기업의 주식취득 사전 신고 전환 등을 들고 있다. 이 중에서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정책과제들은 규제 완화 등에 따른 기업경쟁력 제고와 시장경제 체제 확립에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와 같은 현실들이 반영되어서 12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의 한국CEO포럼에서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아울러 친기업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시장경제 질서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 즉 세금감면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확립하고 시장경제 원리가 잘 작동할 수 있는 '작은 정부'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싫어하는 비시장 경제 패러다임으로 높은 임금과 불안정한 노사관계,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 등에 따른 제조업 공동화의 가속화 등이다.

IV. 요약 및 결론

'2003년 IMD 세계 경쟁력 연감'에 의하면, 시장경제를 위면한 결과에 따라 국가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어 중국과 싱가포르와 같은 외국기업에 대한 신속한 입법관련 지원 및 차별철폐가 시급하며, 노사관계의 안정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제고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2003년도의 각 부문별 순위를 살펴볼 때, 한국은 경제지표, 국가재정구조, IT 인프라 등과 관련하여서는 최상위권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였듯이 시장경제 질서를 외면한 결과로서 외국인 투자를 위한 환경, 노사관계 등에서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 환경에 있어서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하여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고, 노사관계 안정, 외국인 투자유도를 위한 환경 조성 등에 정책과제의 가장 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운영성과 부문을 보면, 현재의 경제지표면에서는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 및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과 관련하여서는 최하수준을 나타내어 장기적인 기업성장의 측면에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이 외국인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한 자유 시장경제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어야함을 나타내어 주고 있다.

한편, 정부행정효율 부문을 볼 때, 전반적인 국가 재정구조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장경쟁 질서에 반하는 자본 및 재산관련 조세부담과 외국 기업에 대한 입법관련 차별 정도가 매우 높은 나라로 분류되고 있다.

기업경영효율 부문을 보면, 조사대상 30개 국가 및 지역 중 노사관계가 가장 적대적인 나라로 평가되었다. 한편, 아시아 국가 가운데 한국의 외국인 생활환경 수준은 7위였는데,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말레이시아, 3위는 일본, 4위는 홍콩의 순으로 도시별로도 서울은 10위로 아시아 주요 도시 중 바닥권에 머물렀다.

이와 같이 외국인들에 대한 비시장경제적이고 비우호적인 경제환경 등은 결국 국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직접 및 간접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도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를 근거로 살펴볼 때, 현 단계 한국의 국가경쟁력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관련 법규 개정 및 산업현장에서의 노사간 신뢰회복에 근거한 생산적 노사관계의 정립으로 시장경제 질서 확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임을 알 수 있었다.

2004년도 IMD의 국가경쟁력(금융부문) 평가를 근거로 살펴볼 때, 시장경제 체제에 걸맞게 완전한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시급히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네거티브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지 못하면 창의적인 상품 개발 등이 불가능해져 결국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이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작성한 시장경제 질서의 악화에 기인하여 '2004년도 경제자유지수'에서 한국은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도 뒤떨어진 상황임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3년 들어 133개 국가 중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가 4.3을 기록해 50위로 전년비 10단계 하락하였다. 국제적인 부패감시 민간단체인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한국의 부패인식지수(CPI)가 4.3을 기록하여 대만 5.7(30위)과 말레이시아 5.2 (37위)와 비교할 때에도 많은 차이가 난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도 시장경제 질서를 역행한데서 비롯되고 있다.

보스틴컨설팅의 보고서를 살펴보아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다. 즉 정부는 기업정책을 글로벌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시장경제 체제를 공고히 확립하여 유연성이 떨어지는 노동시장, 기업 활동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들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조세제도 등 시급한 과제들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003년도의 글로벌 TOP 10 후보기업 및 기타 기업, 경제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시급히 도입해야 할 정책과제들로서 다음을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 인하와 수도권입지 규제 완화, 규제일몰제 도입 및 자유무역협정(FTA)의 적극적인 추진과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2004년 12월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의 한국CEO포럼에서는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과 아울러 친기업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시장경제 질서체제 확립에 대한 요구가 대두되고 있다.